# 바닥쳤던 리튬값 '반등'… 전기차 배터리 가격 안정화 '기대'

**지난해 12월比 리튬가격 26% 올라**
**中 생산지 이춘 환경통제 등 요인**
**3월 리튬이온 배터리 셀 가격 보합세**

LG에너지솔루션 미국 미시간주 공장 모습. /LG에너지솔루션

지난해 하반기부터 공급과잉 우려로 하락했던 리튬 가격이 소폭 상승하면서 배터리 가격 안정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23일 한국자원정보서비스 코미스에 따르면 리튬가격은 지난 19일 기준 109.5위안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12월 말 86.50위안이었던 리튬 가격 보다 약 26% 오른 수치다. 업계에서는 리튬 가격이 바닥을 다지고 반등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리튬은 이차전지 양극재의 핵심 소재로 전기를 생성하고 충전하는 역할을 한다. 지난 2022년 말 전기차 수요 증가와 맞물려 리튬 가격은 빠르게 상승했으나 이후 전기차 판매 성장이 둔화되며 하락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아울러 주요국들이 수요 증가에 대비해 핵심 광물 개발 프로젝트에 뛰어들면서 리튬 생산량이 증가한 것도 가격 하락의 요인으로 작용했다.

배터리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인해 국내 배터리 업계는 수익성 악화 등을 겪으며 실적이 둔화하기 시작했다.

이달 초 잠정실적을 발표한 LG에너지솔루션은 1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1573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75.2% 급감한 수치를 기록했다.

이번 리튬 가격 반등 요인으로는 일부 광산 기업의 감산과 중국 최대 리튬 생산지인 이춘 지역 환경 통제 등이 꼽힌다.

리튬 가격 반등으로 인해 배터리 가격 하락세도 멈추는 분위기다.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가 집계한 지난 3월 중국 전기차 리튬이온 배터리 셀 가격은 지난 2월과 비슷했다.

셀 유형별로 보면 1Wh(와트시)당 가격을 기준으로 각형 삼원형 셀, 파우치형 삼원계 셀 가격은 각각 0.48위안, 0.50위안으로 전월과 같았다. 각형 리튬인산철(LFP) 셀 가격만 0.42위안으로 전월 대비 2% 하락했다.

배터리 셀 가격은 작년 하반기 들어 하락세를 보였으나 전월 대비 하락률이 작년 12월 6~10%, 올해 1월 4~7%, 2월과 3월 각각 0~2%로 점점 완만해졌다.

리튬을 비롯해 니켈, 구리 등 메탈 가격이 지난 2월 초부터 반등한 가운데 배터리 업계 실적은 1분기에 바닥을 찍고 회복 흐름을 탈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다만 지난해 연중 최고치였던 305위안과 비교했을 때는 여전히 낮은 가격이라는 지적이 따른다. 트렌드포스는 공급 측면의 감산에 힘입어 1분기 말까지 리튬 가격이 완만하게 반등할 수는 있으나, 공급과 수요 사이에 가격 결정력이 얽혀 있어 2분기 리튬 가격 변동 범위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 삼성전자, 업계 최초 '9세대 V낸드' 양산

**업계 최소 크기·두께로 비트 밀도 1.5배↑**
**'채널 홀 에칭' 기술로 업계 최대 단수 뚫어**

삼성전자는 23일 업계 최초로 '1테라비트(Tb) 트리플레벨셀(TLC) 9세대 V낸드' 양산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업계 최소 크기 셀, 최소 몰드 두께를 구현해 1Tb TLC 9세대 V낸드의 비트 밀도를 이전 세대 대비 약 1.5배 증가시켰다.

더미 채널 홀 제거 기술로 셀의 평면적을 줄였다. 셀의 크기를 줄이면서 생기는 간섭 현상을 제어하기 위해 셀 간섭 회피 기술, 셀 수명 연장 기술을 적용했다.

삼성전자의 9세대 V낸드는 더블 스택 구조로 구현할 수 있는 최고 단수 제품이다. '채널 홀 에칭' 기술을 통해 한번에 업계 최대 단수를 뚫는 공정 혁신을 이뤄 생산성도 높였다.

채널 홀 에칭은 몰드층을 순차적으로 적층한 다음 한번에 전자가 이동하는 홀을 만드는 기술이다. 특히 적층 단수가 높아져 한번에 많이 뚫을수록 생산효율도 증가하기 때문에 정교화·고도화가 요구된다.

9세대 V낸드는 차세대 낸드플래시 인터페이스인 '토글 5.1'이 적용돼 8세대 V낸드 대비 33% 향상된 최대 초당 3.2기가비트(Gb)의 데이터 입출력 속도를 구현했다. 삼성전자는 이를 기반으로 PCIe 5.0 인터페이스를 지원하고 고성능 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SSD) 시장을 확대해 낸드플래시 기술 리더십을 공고히 할 계획이다.

9세대 V낸드는 저전력 설계 기술을 탑재해 이전 세대 제품 대비 소비 전력이 약 10% 개선됐다. 삼성전자는 환경 경영을 강화하면서 에너지 비용 절감에 집중하는 고객들에게 최적의 솔루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TLC 9세대 V낸드에 이어 올 하반기 '쿼드레벨셀(QLC) 9세대 V낸드'도 양산할 예정이다. 삼성전자는 고성능·고용량 낸드 개발에 속도를 내 인공지능(AI) 시대 반도체 주도권을 잡겠다는 포석이다. 시장조사기관 옴디아에 따르면 글로벌 낸드 매출은 2023년 387억달러(약 53조 3000억원)에서 2028년 1148억달러로 연 평균 24%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측됐다.

최근 낸드 공급 과잉이 점차 해소되며 가격은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트렌드포스가 추산한 지난 1·4분기 낸드 평균 가격은 전 분기 대비 23~28% 상승했고, 2·4분기도 13~18% 오를 것으로 전망됐다.

/구남영 기자

# 하이브 "회사탈취 시도 명확"
# 어도어 "아일릿, 뉴진스 카피"

**국내 최대 엔터 하이브, '어도어 내홍'**
**하이브 CEO, 빌리프랩 등 전직원 메일 발송**
**어도어 민 대표 "카피 문제제기에 해임 통보"**

걸그룹 뉴진스. /뉴시스

국내 엔터테인먼트기업 가운데 사상 최고 매출을 기록한 하이브가 최근 내홍사태를 겪으며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하이브는 걸그룹 뉴진스를 전담하는 어도어 민희진 대표의 '경영권 탈취 시도'를 주장하고 있는 반면 민희진 대표는 '아일릿의 뉴진스 카피'라며 대립하고 있다. 다만 하이브가 민희진 대표의 경영권 확보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내부 권력 구도에 지각변동이 일어날지 이목이 집중된다.

23일 투자은행(IB) 업계는 민 대표가 어도어의 경영권 지분을 취득해 대주주가 되는 상황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어도어에 대한 하이브의 지분이 80%에 달하는 데다, 하이브가 지분을 외부에 팔 가능성은 없다는 이유에서다. 민희진 대표는 하이브의 자사 인기 걸그룹 '뉴진스'를 전담하는 산하 레이블 어도어를 이끌고 있다. 반면 '아일릿'은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프로듀싱에 참여한 하이브 레이블 빌리프랩 소속 신인 걸그룹이다.

어도어는 민희진 대표가 지난 2021년 설립한 하이브 산하 레이블로 하이브가 지분율 80%, 민 대표 등 어도어 경영진이 20%를 보유하고 있다. 나머지 지분 2%(7만840주)는 어도어의 다른 임원이 보유했다. 어도어 이사진도 민 대표 측 인사들도 채워진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하이브는 민 대표가 보유한 지분 18%와 협력한 PE 지분을 더해 과반을 만들려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업계는 어도어가 이사회 개최를 통해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단행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어도어가 비상장사인 점을 고려하면 이사회 결의를 통해 이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 대규모 유상증자를 통해 하이브의 지분율을 희석하고 민 대표 측 우호 지분 비율을 늘리려고 한 게 아니냐는 것이다.

살제 어도어 이사회는 민 대표 및 측근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제 3자 배정 유상증자 시나리오는 가능성이 있다. 이럴 경우 하이브가 신주 발행 금지 가처분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양 측은 법적 공방에 돌입해야 한다. 다만 유동자산만 약 2조원에 달하는 하이브가 자금 부족의 이유로 제3자배정 유상증자가 필요했다는 점은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박지원 하이브 CEO는 이날 오전 하이브 사내 구성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어도어 경영진의 회사 탈취 시도가 명확하게 드러난 사안을 확인하고 바로잡고자 감사를 시작하게 됐다"고 밝혔다. 하이브는 전날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의 '경영권 탈취 시도'를 이유로 민희진 대표 등에 대한 감사에 전격 착수했다. 그러나 민 대표는 하이브 산하 후발 걸그룹 아일릿이 뉴진스를 따라 했다고 문제를 제기하자 해임 절차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박 CEO는 이날 메일을 통해 민 대표의 경영권 탈취 시도가 아일릿과 무관하게 기획된 일이라는 점을 알린 것으로 보인다.

박 CEO는 "이번 사안을 잘 마무리 짓고 멀티레이블의 고도화를 위해 어떤 점들을 보완해야 할 것인지, 뉴진스와 아일릿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어떤 것들을 실행해야 하는지에 대해 서도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개선하겠다"고 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